

	<h1>보 도 자 료</h1>	<p>정부청사관리본부 청사보안기획과 과 장 신기동 (044-200-1480) 사무관 이찬교 (044-200-1380)</p>
 관계기관 합동	<p>2021년 7월 14일(수) 조간 (7. 13. 12:00 이후)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	<p>세종특별자치시 도로과 과 장 우정훈 (044-300-5110) 사무관 박한석 (044-300-5121)</p>
		<p>세종특별자치시 경관디자인과 과 장 홍종선 (044-300-6710) 사무관 이기영 (044-300-6731)</p>
		<p>세종경찰청 공공안전과 과 장 김정훈 (044-559-2080) 경 정 구재연 (044-559-2081)</p>

정부세종청사 주변 불법 천막·현수막 철거로 보행권 보호

- 세종시 및 세종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구조물 일제정비 -
- 관련기관과 협의회 구성하여 월 1회 주기적으로 행정조치 시행 예정 -

-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천막과 현수막이 일제 정비된다.
-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(본부장 조소연)는 세종시 및 세종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정부세종청사 주변 인도와 차도에 불법으로 설치한 천막, 현수막 등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해 시민의 보행권을 보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.
- 집회 및 시위에 사용된 불법 천막·현수막이 오랫동안 방치되면서 보행자들의 이동에 불편을 초래하고,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다.
 - 불법 천막·현수막은 입주기관 종사자와 세종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, 그리고 시민들의 안전사고를 유발하고 세종시 도시 전체의 환경과 미관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.
 - 특히, 지난 6월 7일 세종청사 국토교통부(6동) 정문 인도에 불법 설치물인 망루가 등장하여 세종시민과 정부청사 방문객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.

- 현재, 정부세종청사에는 일 평균 13건의 시위가 발생하고 있으며, 집회 시위 종료 후 참가자들이 관련 시설과 용품을 자진해서 철거하거나 수거를 하지 않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.
- 정부청사관리본부는 불법현수막과 천막에 이어, 설치물(망루)까지 등장해 시민의 보행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에 따라, 이번 일제 정비를 시행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.
- 향후, 청사관리본부는 세종시와 함께 협의회를 개최하여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옥외광고물, 도로 통행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불법 구조물이나 시위용품에 대해 계도와 함께 행정적 실행 조치를 해 나갈 예정이다.
- 이와 관련해 세종경찰청도 청사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천막 등 불법 구조물 철거 시 경찰력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.
- 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“정부청사 주변에서 정부정책 및 지역 현안문제 해결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이익단체나 개인이 적법하게 집회 및 시위를 할 권리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지만 이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정부청사 이용자 및 시민들의 안전과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지양되고 건전하고 성숙한 집회 및 시위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”고 말했다.